

경제주평

- 지금은 조기 경기 저점 형성이 중요한 때
 - 경기판단지수로 본 산업활동 부문별 경기 현황

목 차

■ 지금은 조기 경기 저점 형성이 중요한 때 - 경기판단지수로 본 산업활동 부문별 경기 현황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분석 방법	2
3. 분석 결과	3
4. 시사점	7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지금은 조기 경기 저점 형성이 중요한 때 - 경기판단지수로 본 산업활동 부문별 경기 현황

■ 개요

올해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은 경기순환주기 상으로 제12순환기의 수축 국면을 지나 제13순환기의 확장 국면 중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부문별 경기판단지수를 도출하여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수준에 대해 알아본 후 부문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분석 방법

주요 부문별로 경기판단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 경기 위치를 판단하였다. 분석을 위해 생산, 소비, 투자 등 부문별로 2022년 중 최솟값을 제12순환기의 정점, 2023년 중 최솟값을 저점으로 가정하고, 2022년 중 최솟값 대비 2023년 중 최솟값을 '최대충격폭(A)', 2023년 중 최솟값 대비 2023년 당월을 '충격에서의 회복폭(B)'으로 하여 경기판단지수(B/A)를 산출하였다. 경기판단지수는 0p가 저점으로 최대 충격상태를 의미하며, 0p를 상회하여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1p를 상회할 경우 2022년 중 기록한 정점을 상회하는 강한 회복세로 해석할 수 있다. 단,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경기판단지수는 경기 상황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을 위해 최대충격폭 대비 회복폭의 단순 비율로 정의된바, 정교한 계량 분석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 분석 결과

① 생산

생산은 2023년 말 안정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광공업 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이 전체 산업생산 회복을 주도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경기판단지수는 2023년 1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 회복세가 강화되며 9월 1.68p로 최대충격폭의 168%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12월에도 1.36p를 기록하여 생산 경기는 안정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산 경기를 광공업,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할 경우, 광공업 생산의 회복은 12월 0.68p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80p를 기록하여 2022년 중 기록한 정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소비

소비는 2023년 10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12월까지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으로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에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 경기판단지수는 10월 저점 형성 이후 11월 0.15p, 12월 0.02p로 지수가 오히려 하락하였으며, 특히 12월의 경우 최대충격폭 대비 2%의 회복에 그쳐 여전히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부문별로 보면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저점 형성 시점은 상이하였으나, 12월 각각 0.24p, 0.30p, 0.01p로 전 부문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2023년 7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현재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계류가 회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비투자는 2023년 7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12월에는 최대충격폭의 52%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기계류 주도로 전체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류 설비투자 경기판단지수는 2023년 7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12월 0.45p를 기록한 반면, 운송장비는 하락세를 보이며 12월 0.50p를 기록하는 등 회복 양상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분류인 ICT 품목 설비투자도 지난 4월 저점 이후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12월 최대충격폭의 45%를 회복한 것으로 보아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수축 국면이 지속되면서 저점 도달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축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건설투자의 최대 충격상태는 2023년 12월로 현재까지 아직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부문별로 보면 건축의 부진으로 전체 건설투자가 수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건설투자 경기판단지수는 2023년 2월 3.89p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12월에는 저점을 기록하였다. 반면, 토목은 지난 7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12월에는 최대충격폭의 133%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 건설투자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산업활동별 경기판단지수 >

산업활동	경기판단지수(2023년 12월)	현 경기 국면
생산	1.36p	안정적인 회복 국면
소비	0.02p	저점 부근
설비투자	0.52p	회복 국면으로 진입 중
건설투자	0.00p	수축 국면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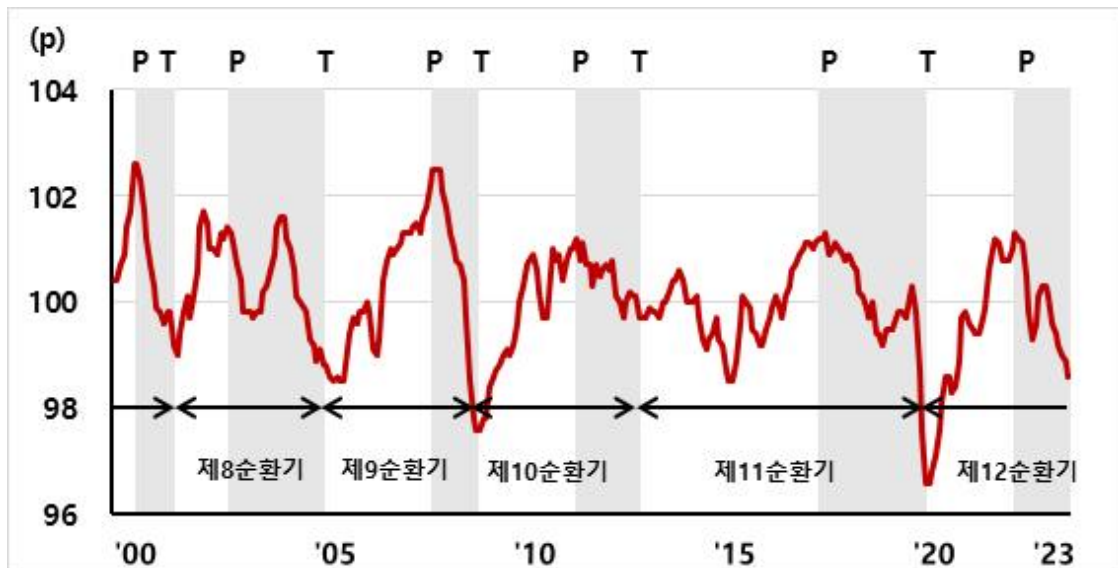
■ 시사점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첫째,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극명한 만큼 소비, 건설투자 등 취약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내수와 달리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 경기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 회복세를 강화, 추후 수출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1. 개요

- 올해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
 - 2024년은 경기순환주기 상으로 제12순환기의 수축 국면을 지나 제13순환기의 확장 국면 중 회복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통계청의 최근 공식적인 기준순환일 기준으로 제12순환기의 저점은 2020년 5월이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생산·소비 등 주요 경기지표 상 정점은 2022년 하반기 중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22년 하반기를 제12순환기의 정점으로 간주할 경우,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 중 경기저점을 형성하는 제12순환기 수축 국면에 위치하고, 향후 제13순환기의 초기 국면인 회복기로의 진입이 예상됨¹⁾
- 이에 본 보고서는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부문별 경기판단지수를 도출하여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 수준에 대해 알아본 후 부문별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000년 이후 경기순환국면 도표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주 : 제12순환기의 정점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1) 과거 순환기의 일반적인 수축 국면은 11~32개월로 평균 20개월 지속되며, 확장 국면의 경우 17~54개월로 평균 33개월간 지속됨.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2024), 2024년 국내 트렌드-NEW PATH to Prosperity, 경제주평 24-01(통권 959호) 참조.

2. 분석 방법

○ 주요 부문별로 경기판단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현재 경기 위치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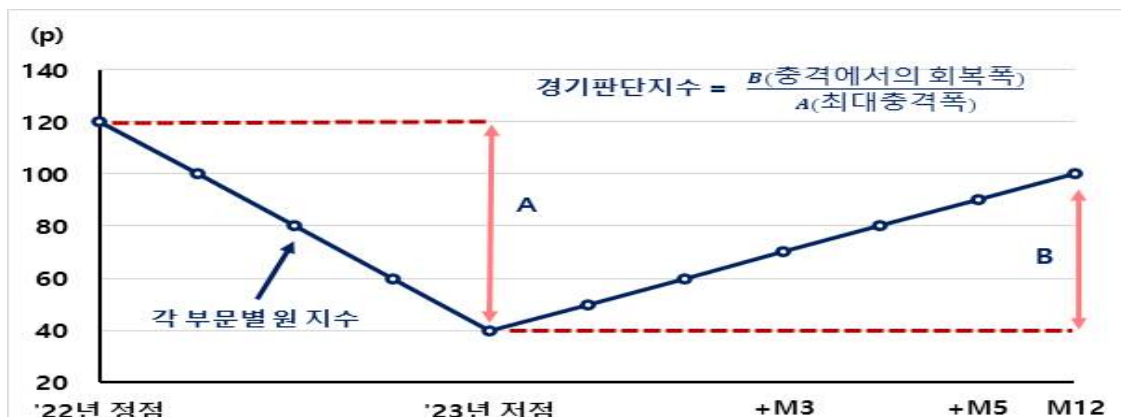
- 부문별 경기판단지수의 도출 방법

- 생산, 소비, 투자 등 부문별로 2022년 중 최고값을 제12순환기의 정점, 2023년 중 최솟값을 저점으로 가정함
- 2022년 중 최고값 대비 2023년 중 최솟값을 '최대충격폭(A)', 2023년 중 최솟값 대비 2023년 당월을 '충격에서의 회복폭(B)'으로 하며, 경기판단지수는 B/A로 계산
- 자료는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의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계절조정 계열 월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생산은 전산업생산지수, 소비는 소매 판매액지수,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지수,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 불변 기준임

- 부문별 경기판단지수의 해석

- 경기판단지수는 0p가 저점(최대 충격상태)을 의미하며, 0p를 상회할 경우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여 회복 중임을 의미. 특히, 1p를 상회할 경우 2022년 중 기록한 정점을 상회하는 강한 회복세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경기판단지수는 최대충격폭 대비 회복폭의 비율로 계산되므로, 100을 곱하여 최대 충격 대비 분석 시점의 회복률(%)로도 해석 가능
- 한편, 본 보고서는 경기 상황에 대한 직관적 판단을 위해 단순 비율을 사용하는바, 정교한 계량 분석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

< 부문별 경기판단지수 도출 방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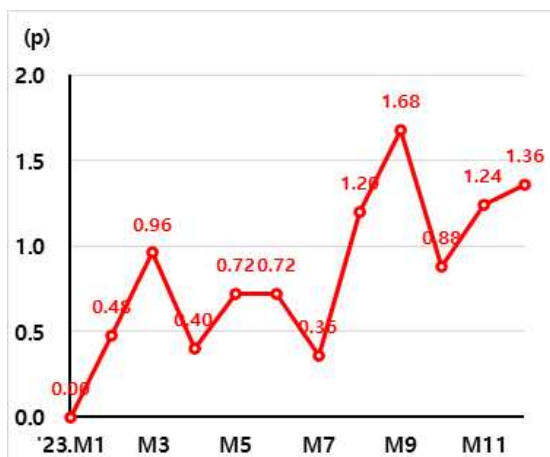
주 : 부문별 2022년 중 정점(최고값), 2023년 중 저점(최솟값)은 상이하며, 그림은 12월 기준.

3. 분석 결과

①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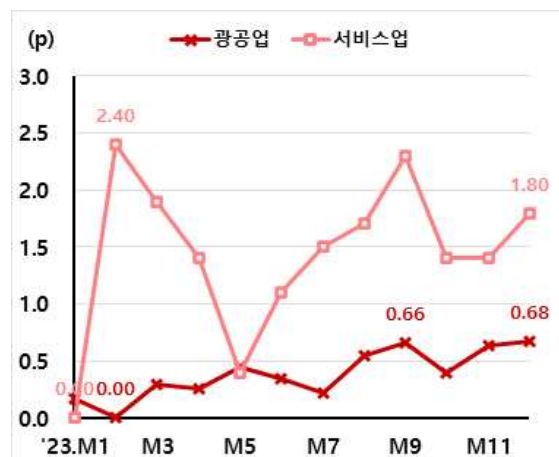
- 생산은 2023년 하반기 이후 안정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으로 광공업은 부진한 한편 서비스업 생산이 산업생산 회복을 주도
- 생산 경기판단지수는 12월 1.36p로 2022년 중 형성한 정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
 - 생산 경기판단지수는 2023년 1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하반기에 회복세가 강화되며 9월 1.68p로 최대충격폭의 168%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회복
 - 이후 변동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12월에도 1.36p를 기록하여 생산 경기는 안정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생산 경기를 광공업,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광공업 생산은 12월 0.68p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80p까지 회복
 - 광공업 생산 경기판단지수는 2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9월 0.66p, 12월 0.68p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반등폭은 미미한 상황
 - 서비스업 생산 경기판단지수는 1월 저점 이후 2월 2.40p까지 크게 상승하였으며, 12월에도 1.80p를 기록하면서 2022년 정점보다도 높은 강한 회복세를 약 7개월 연속 지속 중임

< 생산 경기판단지수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부문별 생산 경기판단지수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② 소비

○ 소비는 2023년 10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12월까지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부진한 흐름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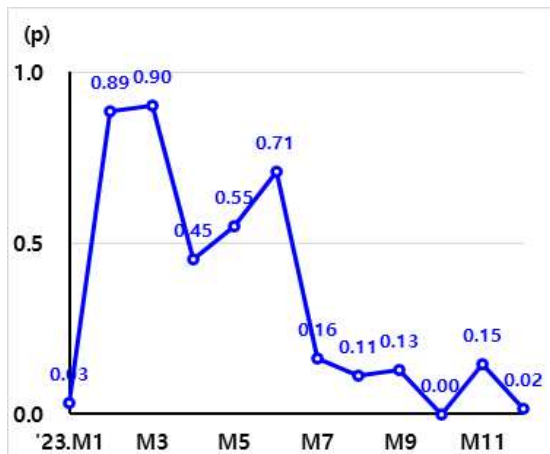
- 소비 경기판단지수는 12월 0.02p로 10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뚜렷한 반등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

- 소비 경기판단지수는 2023년 10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11월 0.15p, 12월 0.02p로 저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
- 특히, 12월은 11월 대비 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회복률 기준으로도 최대충격폭 대비 2% 반등에 그치며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부문별로 보면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저점 형성 시점은 상이하나, 모든 부문에서 12월까지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

- 내구재 소비 경기판단지수의 경우, 9월 저점 형성 이후 12월에도 0.24p에 그쳐 최대충격폭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
- 준내구재 소비 경기판단지수 또한, 9월 저점 이후 10월부터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여 12월 0.30p를 기록
- 비내구재 소비 경기판단지수의 경우, 1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3월 0.60p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하락세가 심화하여 12월 0.01p로 저점에 근접한 수준까지 크게 하락한 상황

< 소비 경기판단지수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부문별 소비 경기판단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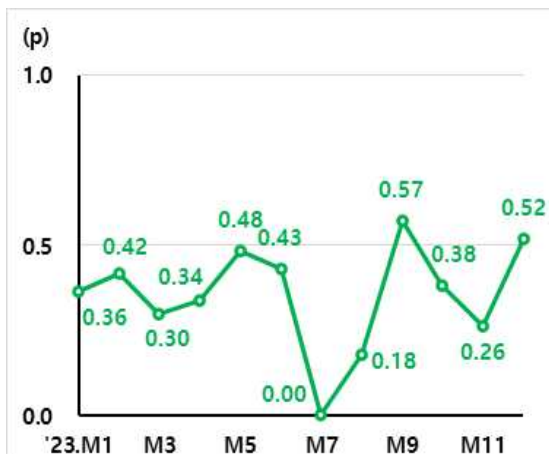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③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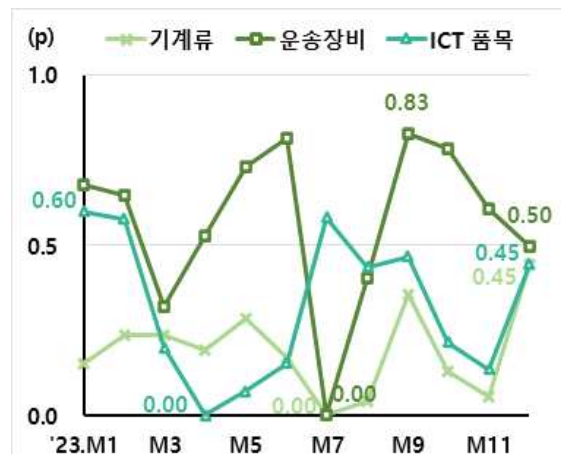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2023년 7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 현재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으로는 기계류가 회복을 주도
 - 설비투자는 2023년 7월 저점을 형성하였으며, 12월에는 최대충격폭의 52%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설비투자는 지난 7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하반기 경기 저점을 형성하였음을 시사
 - 2023년 9월 설비투자 경기판단지수는 0.57p로 202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0.52p로 최대충격폭의 52%를 회복
 - 부문별로 보면 기계류 주도로 전체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
 - 기계류 및 운송장비 설비투자의 저점은 2023년 7월로 동일하나, 회복 양상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기계류 설비투자 경기판단지수는 저점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12월 0.45p를 기록한 반면, 운송장비는 하락세를 보이며 12월 0.50p를 기록
 - 한편, 특수분류인 ICT 품목²⁾ 설비투자도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ICT 품목 설비투자는 지난 4월 저점 이후로 회복세를 지속하며 12월 최대충격폭의 45%를 회복

< 설비투자 경기판단지수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부문별 설비투자 경기판단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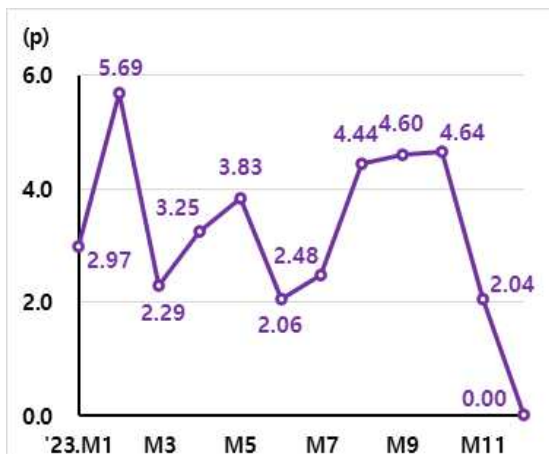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2) 유·무선통신기기, 영상기기, 음향기기, 컴퓨터 등으로 구성.

④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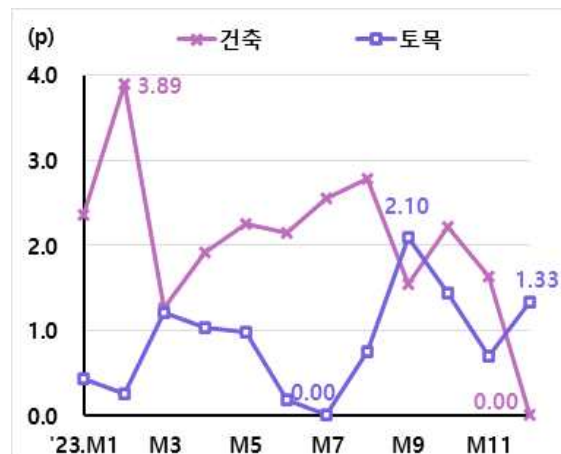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수축 국면이 계속되면서 저점에 도달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으로는 건축의 부진이 두드러짐
- 건설투자의 최대 충격상태는 2023년 12월로 현재까지 아직 저점을 형성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건설투자 경기판단지수는 2023년 2월 가장 높은 수준인 5.69p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
 - 건설투자는 12월이 최대 충격상태인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아직 저점을 형성하지 못한 채 수축 국면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부문별로 보면 건축의 부진으로 전체 건설투자가 수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건축 건설투자 경기판단지수는 2023년 2월 3.89p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12월에는 저점을 기록
 - 반면, 토목은 지난 7월 저점 이후 회복세를 이어가며 12월에는 최대충격폭의 133%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토목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전체 건설투자의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건설투자 경기판단지수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 부문별 건설투자 경기판단지수 >



자료 :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 경기가 저점을 통과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경기 회복 국면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첫째,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극명한 만큼 소비, 건설투자 등 취약 부문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금융 지원 등 건설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건설 경기가 조기에 반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기업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내 투자 증대를 꾀할 필요
- 소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 확대, 할인 쿠폰 발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소비 진작책을 지속 추진하여 내수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수와 달리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 경기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 회복세를 강화, 추후 수출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근 수출이 뚜렷한 개선세(1월 전년동월대비 18.0% 상승)를 보이는 등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내수 경기는 다소 부진한 상황
-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 및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현재의 수출 회복세를 강화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가가 고용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전개할 필요

셋째,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다.

- 저소득, 고령, 1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의 가계 특성별 사회 안전망 차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개선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금융 등 부문의 사회 안전망은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 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HRI**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